

오피니언

월/요/광/장

구길선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니까?” 법정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장면이다. 재판장이 증거를 대라고 촉구하면 이와 같이 답변하는 소송 당사자들이 많다. 판사가 모든 사정을 다 알 것이라거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잘 헤아려 옳게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마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그 소송 당사자는 패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패소 당사자는 담당 판사에 대해 ‘이상한 판사’라거나 심한 경우 ‘판사가 반대 당사자 쪽의 뇌물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여기기도 한다. 더 나아가 1인 시위는 물론, 패소한 사람들끼리 모여 법원을 비방하는 단체활동을 하기도 한다.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소송당사자와 함께 그 사건의 현장을 쫓지 지켜보았던 것도 아니며,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 그 장소로 가볼 수도 없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그 주장의 진실성을 가릴 수밖에 없다. 즉 현대 재판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 원칙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절차에서의 사실인정은 적법한 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의 이른바 ‘원님재판’ 당시에는 이러한 원칙이 확실하지도 않았고, 행정기

관과 사법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원님의 심중에 따라 소송의 승패나 유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원님재판에서는 증거가 없어도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변 학도 같은 탐관오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반성의 산물이 바로 증거재판주의인 것이다.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저쪽 말도 맞는 것 같을 때 참 고민이 많겠다.” 필자가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다. 소위 증명책임의 문제이다.

법관이 문제가 된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 재판이 여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그 사실의 존재 여부를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그 사실의 존재 불명의 불이익을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돌리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된 사실의 존재 불명의 경우에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수단이 곧 증명책임이고, 이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돼 있다. 민사·가사·행정 재판에서는 증명책임이 대부분 원고에게 있다.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는 피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과 그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하더라도 그 증명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정도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다른 재판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예컨대 절도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들이 이를 증명하더라도 그 증명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 진실이고, 동태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증거를 대지 못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 피고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사법불신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이와 같은 증거재판주의 내지 증명책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주장하는 사실이 분명히 맞는데도 부패하거나 무능한 판사가 패소판결을 선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문에 사건화된 그 공무원이 분명히 뇌물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공무원이나 변호인의 편을 들어 무죄판결을 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와 같은 증거재판주의 내지 증명책임의 원칙을 이해하기에는 우리 현대 사법의 역사가 아직은 짧은 것 같다.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도 법원에서 검사실을 찾는다든가 법무부장관이 법관에 대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 진실이고, 동태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증거를 대지 못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 피고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사법불신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이와 같은 증거재판주의 내지 증명책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주장하는 사실이 분명히 맞는데도 부패하거나 무능한 판사가 패소판결을 선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문에 사건화된 그 공무원이 분명히 뇌물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공무원이나 변호인의 편을 들어 무죄판결을 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와 같은 증거재판주의 내지 증명책임의 원칙을 이해하기에는 우리 현대 사법의 역사가 아직은 짧은 것 같다.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도 법원에서 검사실을 찾는다든가 법무부장관이 법관에 대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차질없이 추진돼야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6·2 지방선거부터다.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은 민선 5기에 추진할 100개 주요 과제 가운데 ‘무등산의 품격있는 생태자원 관리’를 꼽을 정도로 국립공원 승격에 적극적이다. 강시장은 “무등산 정상 부근에 있는 군 부대와 방송통신시설을 이설하고, 사유지를 국·공유화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립공원 승격 시기를 오는 2012년으로 잡고 있다. 국립공원 승격의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등산은 광주의 상징이자 역사다. 산 정상에 일석대와 서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산 작약과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도 서식하고 있다. 무등산이 국립

공원이 되고 주상절리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광주의 브랜드 가치도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등산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분포돼 있다. 당연히 전남도 및 해당 시·군과의 행정협조가 요구된다. 면적이 작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무등산의 면적은 현재 국립공원 중 가장 적은 월출산의 절반 크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군부대 및 통신시설 이전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57%에 달하고 있는 점 역시 국립공원 승격의 부정적 요인이다.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립공원 지정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환경보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사유지 소유자들과의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이자 부담 커진 가계·中企 대책 서둘러라

지난 7일 기준금리가 16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지난해 2월부터 연 2%에 묶어두었던 초저금리가 소폭 오를 셈이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와 물가불안을 감안할 때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과 거품을 잡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늘어난 이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속도가 문제일 뿐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의 빛 상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사상 최악이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실질소득은 줄었는데 빚 규모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또한 대출금 이자 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빚 원금은 모두 1천683조4천억원이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일단 빚을 지고 있다면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영세·중소기업일수록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소비 위축과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금리 상승 후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와 거치 기간을 늘리는 등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가계대출 중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장기 불황의 늪에서 얽힌 데달된 격으로 금리 인상 폭탄 맞아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와 전남·북의 산림생태축은 호남정맥이다. 이 땅의 척추 백두대간에서 뻗어내린, 남도인의 변함없는 삶터다. 광양 백운산에서 전북 진안 주화산까지 한 번도 물을 건너지 않고 이어지는 산줄기로, 지도상 거리는 398.7km에 달한다. 전통지서 산경표(山經表)의 분류에 따르면 그렇다. 하지만 백두대간 영취산에서 주화산까지는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의 공유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취산까지 462km가 온전히 호남정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라도를 동서로 나누는 호남정맥은 주민생활권의 분계가 된다. 행정구역도 이를 경계로 나누는 곳이 많다. 문화권을 가르

는 울타리 역할도 한다. 안쪽은 섬진강, 바깥쪽은 만경·동진·영산·탐진강 수역이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마을들은 공통의 문화를 형성하지만, 그 경계가 되는 정맥은 바다에 이르도록 끊이지 않고 뻗어가며 다양성을 불어넣는다. 정맥을 경계로 말씨와 음식 맛이 달라지며 세시풍습 또한 차이가 난다. 서쪽 들

판문화와 동쪽 산지문화는 풍물 가락부터 맛이 다르다.

호남정맥의 중심축은 백운산(1,218m)과 무등산(1,187m)이다. 9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우리 산줄기 중주 바람에도 마무름을 따라 정상은 넘어설 수 없는 산이 적지 않았다. 호남정맥에 선 무등산과 존재산이 대표적이다. 정상을 독자지하고 있는 군부대 탓이다.

이로 인해 무등산의 경우 한참을 우회해 북산이나 장봉재로 가야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생태계 보전과 경관보호를 위해 도립공원인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정상에 군부대를 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왕·지왕·인왕 정장 3봉을 백백년 가까이 군부대가 점유하면서 경관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음은 불문가지다. 철수 결정이 내려 진다 해도 생태복원에만 수년이 걸릴 터다. 하지만 정상이 시민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정도야 더 못 기다릴 이유가 있겠는가.

/정주시 정경부장 who@kwangju.co.kr

무등산 군부대



법조칼럼

김도근



대학시절 어느 수업시간에 받은 팔괘 한구석에 있던 책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 책 이름을 한번 유심히 보고서, ‘서구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꽤 선정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슈팽글러의 사상을 한번 공부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이 책을 꼭 읽으리라 다짐을 하였으나, 그것은 요원하여서 이십년이 지난 이제야 이 방대한 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책은 제1차 세계대전의 끝자락인 1918년 발간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있기 이전의 세계는 유럽인들에게는 가히 안정의 황금시대였다. 그 시대는 모든 것이 ‘지적’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국가가 이 지식의

보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 세계가 와해되는 것은 일격의 촉발로서 가능하였다. 슈팽글러는 이상과 진보의 시대를 과거의 것으로 회상하면서 문화와 문명은 표면의 얽은 층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으며 서구의 몰락을 선언하였다. 슈팽글러는 자신의 청춘을 밝혀 주었던 옛날의 별과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데모크라시 반대론’을 주장한 바 있다. 권력은 의회에서 개인적인 서클화된 정당으로 옮겨가고, 선거는 멈추기 어려운 회극으로 타락하며, 화폐금융이 이것을 보유하는 자의 이익을 위한 과정을 조정하면서 지성을 파괴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소멸시킨다고 주장한다.

슈팽글러의 위기의식

최고 보증인이었다.

화폐는 대부분 금화로서 변동 없이 유통되었고 누구나 자기는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알고 있었다.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거기에서 얼마의 자산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으며, 관리나 장교는 자기가 정확하게 언제 승진을 하게 되며 어느 해에 정년 퇴직하게 될 것인지를 안심하고 달력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안정이 지속되리라 는 생각에 전장과 혁명을 믿지 않았고, 그런 과격한 것은 이성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전장과 기근이 있었던 이전의 세계를 경멸하였고, 자기 생활의 마지막 틀새까지 울짙을 두르고 운명의 어떠한 침입도 막아낼 수 있다고 감동적으로 신뢰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서구 유럽인들은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의 견지에서 세계는 진

화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 세계가 와해되는 것은 일격의 촉발로서 가능하였다. 슈팽글러는 이상과 진보의 시대를 과거의 것으로 회상하면서 문화와 문명은 표면의 얽은 층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으며 서구의 몰락을 선언하였다. 슈팽글러는 자신의 청춘을 밝혀 주었던 옛날의 별과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데모크라시 반대론’을 주장한 바 있다. 권력은 의회에서 개인적인 서클화된 정당으로 옮겨가고, 선거는 멈추기 어려운 회극으로 타락하며, 화폐금융이 이것을 보유하는 자의 이익을 위한 과정을 조정하면서 지성을 파괴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소멸시킨다고 주장한다.

슈팽글러의 논리는 극단적이고 비타협적인 면이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현상들, 즉 건설업과 금융업에 불모잡힌 국민경제, 화폐의 과잉으로 침몰해가는 세계경제, 인터넷을 통하여 형성된 여론의 힘에 의하여 과잉이 된 대중의 힘과 이에 편승한 정치가들, 이러한 대중과 정치가들에 의하여 가중되고 있는 파시즘의 전조들 등에 비추어 보면, 슈팽글러의 예언이 가능하지 않은 예언에 불과할지라도, 슈팽글러가 맞부딪혔던 시대적 위기가 다시 도래한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광주지법 판사>

정도이다. 하지만, 웃 어디에서도 이런 장식품이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주의표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엔 영유아용 의류 부차물과 관련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의류에 대한 장식품의 부차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표시를 강화해야 한다. ▲황은숙·광주시 남구 구동

기고

서복남



디자인은 그 자체가 관공이고 문화다. 삶의 공간에서 문화는 사람이 중심이며 사람이 중심인 문화는 소통을 중요하게 만든다. 소통의 문화는 역사를 읽게 하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를 지으며 서구의 몰락을 선언하였다. 디자인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물의 마음을 담아 전달해 주는 문화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삶의 공간 속에서 디자인이란 삶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문화로서의 접근이 필요로 할 때이다.

21세기는 ‘지적 자산’이 디자인으로 가치를 결정짓는 감성디자인의 시대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시대를 지나 철학

과 경험적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디자인은 표현 수단일 뿐만 아니라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된다.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 창출과 직관적인 매력 발굴은 디자인의 기본 요소이지만, 디자인으로 문화와 전통에 경험 가치를 더하고 고객을 깊이 배려하며 감동을 주려는 노력이 성공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탈을 겪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유 무형의 전통 가치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운동이 절실하다. 역사와 문화를 중시하는 태도는 디자인 개발에서 경험 가치를 인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한류의 바

디자인은 소통의 문화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디자인으로 변화를 추구하고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디자인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고 공공장소와 생산현장, 가정환경 등 모든 곳에서 디자인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 자원이 새로운 가치로 탄생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야 한다. 디자인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처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속에서 디자인은 투자에 비해 높은 프리미엄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분야로 떠올랐다.

실제로 실물경제에서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가장 빨리 회수되고 이익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이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혁신의 시작이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적 가치를 발굴하고 만들어낸다. 격조 높은 디자인을 하려면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반영한 정서적 배려

와 경험적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디자인은 표현 수단일 뿐만 아니라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된다.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 창출과 직관적인 매력 발굴은 디자인의 기본 요소이지만, 디자인으로 문화와 전통에 경험 가치를 더하고 고객을 깊이 배려하며 감동을 주려는 노력이 성공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탈을 겪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유 무형의 전통 가치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운동이 절실하다. 역사와 문화를 중시하는 태도는 디자인 개발에서 경험 가치를 인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한류의 바

문화적 가치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여러 분야의 문화를 디자인하여 세계를 주도하는 파워 디자인 전담으로 부상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의류장식품, 부차강도·안전표시 의무화해야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내 아이만큼 예쁘게 입고 싶다는 생각에, 장식이 많은 옷 골라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엄마들이 단추나 구슬이 너무 허슬하게 달려 있어, 아이가 삼키는 사고가 잦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어린이 의류 장식품의 부차강도는 너무나 미약하여 아이들이 잡아당기면 그냥 떨어질

다. ▲황은숙·광주시 남구 구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